투데이 칼럼

등소평의 흑묘백묘 (黑猫白猫)

정 복 규
논설위원 · 통일교육원

중국 등소평의 흑묘백묘(黑猫白猫) 사상에 여전히 관심이 크다. 40여 년 전 중국은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혁개방을 선포했다. 당시 등소평 주석은 개혁개방을 천명하면서 '흑묘백묘' 사상을 내놓았다.

흑묘백묘 사상의 핵심은 바로 실리주의다. 등소평의 흑묘백묘 사상은 개혁개방 30년 만에 중국을 경제강국으로 만들었다. 묘(猫)는 고양이 묘자로서 고양이를 의미한다. '쥐만 잘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하던 1970년대 후반의 중국의 현실에 가장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들어맞는 이론이자 개혁사상이었다. 등소평은 "인민들이 배불리 먹고 잘 입고 편히 살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공연히 무슨 사상이니 하면서 떠들어 봤자 그 허구 이론 속에서 쌀이 나오느냐? 실사구시(實事求是), 즉 사실에 토대를 두어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한 이후 사회주의 건설과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보다는 피해가 컸다. 1958년부터 3년간의 '대약진운동'이나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간의 '문화대혁명'은 모두 절대 권력을 지키려는 모택동의 야망에 의해 일어난 것이다.

1958년 5월 중국 공산당 제8기 제2차 중앙위원 전체회의에서 모택동은 "분발하고 전력을 다하여 보다 높은 단계를 추구하고 빠르고 낭비 없는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서 '삼면홍기'라는 발전 전략을 내놓았다.

삼면홍기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총노선, 대약진운동, 인민공사라는 세 방면에서 붉은 깃발을 들고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택동은 1958년에는 7년이면 영국을 따라잡고 다시 15년이면 미국도 따라잡는다면서 인민들을 들볶아댔다.

이 같은 모택동의 사상과 주장으로 시작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은 엄청난 피해를 냈다. '대약진운동'은 경제와 농업을 파괴시키고 3천여만명의 사망자를 냈다.

'문화대혁명'은 2천여만 명의 사망자를 냈다. 1976년 모택동이 죽은 후 강청을 비롯한 4인방이 체포된 직후에도 감히 모택동의 사상을 거부하지 못했다. 모택동의 사상을 거부하면 문화대혁명의 피바람이 또다시 일어날까 두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강청의 4인방을 물리친 등소평은 1978년 중국 공산당 제12기 제3차 중앙위원 전체회의에서 개혁·개방을 선포했다. 과거의 사상과 수령을 위한 잘못된 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그 대신 개혁·개방정치를 선포했던 것이다.

등소평은 "사실에서 진리를 구한다는 실사구시"와 "실천만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말로 자신의 실용주의 사상을 설명했다. 등소평의 실용주의는 '문화대혁명'의 결과로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일찍이 혁명에 참가한 초기부터 현실을 중시했던 등소평은 '대약진운동'이 실패했을 때 처음으로 '흑묘백묘'론을 주장했다. 1962년 등소평은 당 간부들에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라고 하면서 정치 및 경제 노선의 수정을 제의했다.

이 주장 때문에 등소평은 '문화대혁명' 때 처벌을 받아 1968년 강서성의 한 기계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실용주의 사상을 버리지 않았고 결국에는 중국인민들에게 개혁·개방의 희망을 안겨주었다.

등소평의 현실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흑묘백묘' 사상은 모택동에 대한 평가에서도 나타난다. 대부분의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수령은 절대적인 신격화로 떠받든다.

수령이 하는 모든 일과 사상과 정책은 거부하고 비판할 수 없었다. 등소평은 1981년 중국공산당 제11기 제6차 중앙위원 전체회의에서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적 문제에 관한 결의'을 통해 '문화대혁명'을 모택동의 과오로 분명하게 인정했다.

실용주의 사상에 기초해 모택동의 성과와 과오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개혁·개방이 과거와 수령과 사상에 얽매이지 않도록 했던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눈부신 경제 발전은 등소평의 '흑묘백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 설

제27회 열린시문학회와 신수미 수상자

제27회 열린시문학상 수상자로 신수미 시인이 선정됐다. 열린시문학회는 지난 1989년 이운룡 박사가 창립했다. 그 뒤 열린시문학회는 문학상을 제정하고 해마다 시상해 오고 있다.

올해 심사위원들은"신수미 시인의 시 작품성에 주목했다"며 "일상에 가려진 자연과의 깊은 소통을 통해 재해석된 자연 또는 자연과의 일체 유심을 형상화한 서정 세계를 아름답게 풀어 놓았다"고 평했다.

이어 "사회 지도자급 위치에서 바쁜 일상을 쪼개 꾸준히 열린시문학회의 발전과 창립 정신에 집중하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시문학에 대한 탐구와 긍정적 결과를 높이 평가 한다"고 덧붙였다.

신수미 시인은 전남대학교 공과대학과 예원예술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 선린중학교 교사를 거쳐 전북 YWCA협의회 회장, 전북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초대 관장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을 역임하고 전주YWCA이사로 사회봉사와 참여에도 적극 앞장섰다.

한편 열린시문학회는 지난 2020년 동인지 '열린詩集' 제30집을 발간해 눈길을 끌었다. 이 시집에는 그 동안 출간된 29권의 동인지를 모두 한자리에 모아 책 표지를 만들었다.

특히 회원들의 깊이 있는 평설을 묶어내 열린시문학회 30주년의 의미를 돌아보기도 했다. 열린시문학상은 자연과 사람의 존엄성을 문학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문학 발전에 기여한 열린시문학회 회원을 격려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회원들은 당초 문학을 화두(話頭)로 해서 모였다.

좋은 시를 창작하여 오래도록 독자들의 기억에 남는 시인이 되는 것이 회원들의 목표다.

인생은 짧고 문화 예술은 길다. 예술인들은 결코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열린시문학회 회원들이 모두 세계적인 훌륭한 문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노년의 건강한 성(性)문화

전주 양지노인복지관이 지난 8월 관내 노인성상담센터 상담실에 'The 빨간책방'을 오픈했다. 이는 성(性) 상담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일이다.

실제로 양지복지관은 독서 토론, 독후감 쓰기 등을 진행하면서 노인 성(性) 상담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한층 더 새롭게 변신시키고 있다. 이에 앞서 양지노인복지관은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노인 성(性) 상담센터 문을 열었다.

그동안 개인 상담은 물론 다양한 주제의 성(性) 공개강좌, 부부관계 개선, 이성교제, 양성평등을 위한 성(性)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노인의 성(性) 인권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요즘 수명이 늘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의 건강, 퇴직, 부양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 노인에게 성(性) 문제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이면서 복잡한 사안이다.

노인의 성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드러내 놓고 다루기 힘들다. 보통 노인이라 하면 성에 관해 관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은 인간이 타고 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가진 권리다.

사회가 여전히 노인 성 문제를 외면하면서 노인들이 성적 소외에 내몰리고 있을 뿐이다. 노인들의 성은 음지에서 방치되고 있다. 주책을 부린다는 사회의 왜곡된 시선들이 노인들을 더 움츠러들게 만든다.

실제로 노인들은 성상담 자체를 꺼려한다. 대부분"상담은 무슨 상담이야, 남들이 볼까 무섭다"라고 한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장소 제공이 절실하다.

전주양지복지관의 The 빨간책방을 통해 어르신들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여 건강한 성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대에 맞는 건강하고 올바른 노인 성(性) 문화를 주도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자살? 살자!

무주지역은 심심치 않게 자살 신고가 접수되는 지역으로 자살 추정 가출신고 접수 시 가족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려 경찰과 협력단체 등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발견위한 수색에 최선을 다한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03년 이후 현재까지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 12.1명의 2.4배에 달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그동안 자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의 성과로 최근 통계에서는 자살률이 부분적으로 감소하긴 하였으나 3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한창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연령대의 자살률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20명 이내, 연간 자살자 수 1만 명 이하로 끌어내리기 위해 자살 예방 행동 계획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은 세계 수준의 노동시간과 높은 업무강도,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과 관련한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잠재적인 정신 건강 문제와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자살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인생을 마감하려는 사람들의 자살 기도 및 자살 신고 접수로 인해 경찰은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협력 기관, 단체와 합동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생을 마감하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지만 그럴 용기로 한 번 죽었다 생각하고, 어차피 죽으려고 했던 용기 내어 살아보면, 삶에 도전해보면 어떨까?

자살... 뒤에서부터 읽어보면 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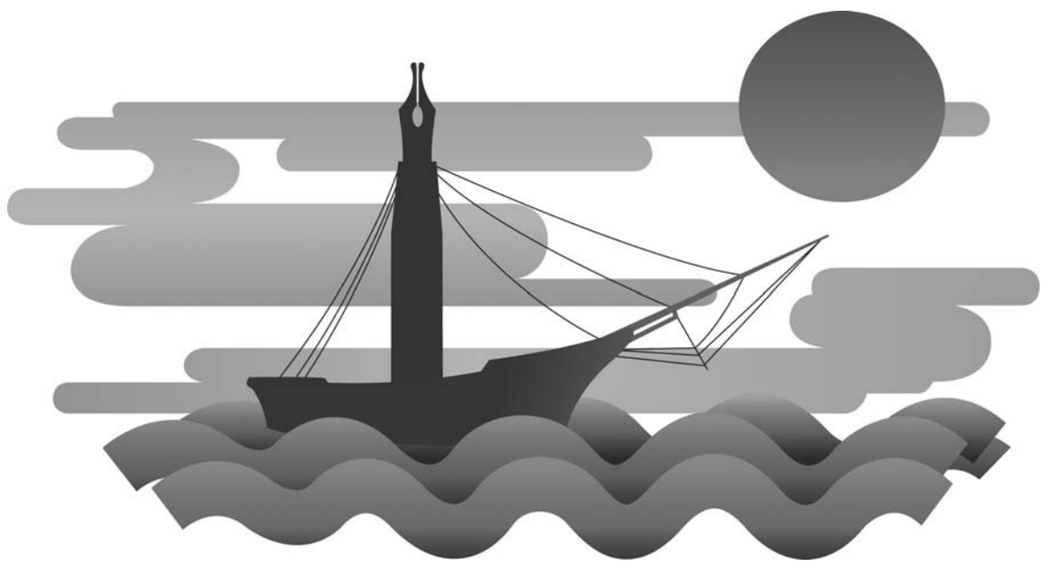
누구나 고귀한 생명이고,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이며, 누구의 아들, 딸로서 소중한 존재이다.

전근수 무주경찰서 민원실장 경감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구호 적힌 손팻말 들고 행진하는 북 시민들

지난 9일 북한 평양의 개선문 앞에서 평양 시민들이 정권 수립 73주년(9·9절)을 기념해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